장성,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서울·광주·장성 등지서 진행…21개 지역 업체 참여
과일·전통·곶감·유과·반찬세트 등 80여 품목 선보여

장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연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싱싱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연다.

군은 서울과 광주, 장성에서 '장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킴스클럽 야탑점(1월 2일~1월 8일)에서 첫 직거래장터가 열렸으며, 중구청(1월 6일~1월 13일), 송파구청(1월 16일~1월 17일), 양천구청(1월 15일~1월 16일)에서 진행된다.

또 광주에서는 농협광주유통센터(1월 14일~2월 4일), 롯데슈퍼 광주·전남 45개점(1월 6일~1월 12일)이 각각 운영된다.

아울러 장성에서는 남면농협로컬푸드 직매장(1월 15일~1월 23일)과 장성호(1월 24일~1월 25일)에서 직거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21개 지역 업체가 참여해 80여 품목을 선보인다. 과일과 전통주, 곶감, 유과, 반찬세트 등 명절 선물로 좋은 상품들이 주를 이룬다.

직거래장터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가에서 10~2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택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좋은 사과의 경우 5kg 한 박스가 2만8천 원, 배는7.5kg에 2만7천 원에 판매 된다.

한편 지난해 태풍피해로 흠집이 생겨 상품성이 저하된 알뜰사과의 특별판매도 진행 된다.

생산성 저하와 소비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킴스클럽은 10톤을 판매했으며, 롯데슈퍼는 150톤 판매를 위해 협의 중이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나주의용소방연합회, 백미 기탁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최근 지역 의용소방연합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백미(20kg) 50포를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나주시의용소방대는 관내 읍·면·동 주민 7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화재 발생 시 일선 소방관들의 원활한 진화 작업을 위한 특급 도우미로 활약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의용소방연합회 대장단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김광식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거어르신, 저소득층이 생활상 어려움이 없는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회재난 현장을 찾아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의용소방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의 따듯한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영광, 2019년 결혼 57명·출생아 수 167명↑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019년 12월 말 결혼·출산 통계 결과 전년 대비 결혼 건수 57명, 출생아 수 167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2위인 경기도 시흥시(141명)보다 26명이 더 높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 영광군 인구수는 전월 대비 3명이 감소한 5만3천852명으로, 전년 대비 57.5%의 감소율 둔화를 보이며 372명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해 다양한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전남도 인구종합 평가에서 시군 1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광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영광군 인구 회복을 위해 새로운 시책들을 추가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영광군은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천만원을 여섯째아 이상은 3천500만원을 상향 지원한다.

또한 건강한 결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예비·신혼부부교실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둥이가족 행복여행도 새로이 추진한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해 다양한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전남도 인구종합 평가에서 시군 1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광군 제공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설,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 추진

아울러 기존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만 지원해 주던 것을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 지원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센터 확장 이전 운영, 청년 321 프로젝트 등 맞춤형 청년 시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광읍 구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 거리인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에도 힘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9년에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해 다양한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었다"며 "2020년에도 새롭고 다양한 시책 추진에 힘써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함평,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납부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올해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독립세화 되면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국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후 따로 마련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만 하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군청에 설치된 별도의 신고센터를 통해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세무서 내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통해 국세 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병행할 수 있으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미리 발송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통해 실제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이듬해인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제로 전환됐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담양,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내달 5일까지 신청, 읍·면 농업인상담소서 접수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42개 사업 66개소를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총 22억7천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식량작물 분야에는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등 2개 사업 8개소, 원예분야에는 담양 신품종 딸기재배단지 확대 보급시범 등 4개 사업 5개소, 신소득·과수작물 분야는 패션프루트 저비용 무가온 하우스 월동재배 등 10개 사업 16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축산 분야는 ICT 이용 한우 번식우 모델농장 육성 시범 등 14개 사업 17개소, 농촌자원 분야는 치유농업육성 시범 등 8개 사업 10개소, 교육경영분야는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10개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농산물가공교육, 정보화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교육을 추진해 농업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희망농가는 해당 읍면의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사업별 추진계획을 상담한 후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est1@

화순, 소규모 수도시설 일제 점검 시행

15일까지…상수도 58곳·소규모 급수시설 67곳 대상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군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5일까지 설 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대상은 화순읍 수만1리 수촌마을 등 마을 상수도 58곳, 백아면 다곡리 웅곡마을 등 소규모 급수시설 67곳으로 총 125곳이다.

일제 점검은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담당자, 시설물 관리자(마을 이장)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소독시설 상태와 소독약품 적정량 투입 여부 등 시설 운영관리 상태, 노후 시설물을 점검·파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 공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냄새·맛 등을 이유로 소독제 사용을 꺼리는 주민에게 안전한 물 사용을 위한 소독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인성 전염병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79-386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